

나주시, 농촌인력난 해소... '인우보증' 외국인 근로자 국내 첫 도입

필리핀 팜팡가주와 계절근로자 도입·우호교류 업무협약 근로자 무단이탈 방지 복수 인우보증인 제도 시행 '주목'

나주시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리핀 현지 지자체에서 '입국 후 이탈 방지'를 보증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자국민 인우보증 방식의 계절근로자 파견이 나주에서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경우, 안정적인 인력 확보는 물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집단 무단이탈로 인한 불법 체류자 증가도 감소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지난 4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필리핀 팜팡가주, 팜팡가주 구아구아·산루이스 시(市)와 '우호교류 협력·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데니스 가르시아 피네다 팜팡가주지사, 앤서니 조셉 토레스 구아구아시장, 제이슨 사쿰 산루이스시장, 에스메랄다 가르시아 피네다 루바오시장 등

26명이 참석했다.

필리핀 북부 중앙 루손지방에 위치한 팜팡가주는 인구 243만명 규모 22개 시·군으로 구성된 광역지자체로 필리핀 81개주 중 9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나주시와 팜팡가주는 협약 체결에 따라 농업을 비롯한 경제, 교육, 관광, 문화·예술, 에너지, 전력기자체 수출 등 다양한 산업분야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팜팡가주 2개시와는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교류·협력에 나선다.

협약식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따른 농업기술 전수, 근로자 선발·적응훈련 실시, 근로 조건·복지후생, 근로자 이탈 방지안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파견 계절근로자들은 한국 입국 이후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 자국 내 복수의 '인우보증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해 주목 받는다.

앞서 에스메랄다 G. 피네다 루바오 시장은 지난 7월 14일 방한 기간 중 나주시를 방문해 윤병태 시장과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 활성화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피네다 주지사 일행은 협약식에 앞서 빛가람혁신도시 내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를 방문해 우수한 전력 운용 시스템과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촌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 에서 필리핀 팜팡가주와 계절 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양질의 노동력을 가진 필리핀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 농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통해 자국에서 농업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니스 가르시아 피네다 주지사는 "협약을 통해 나주시와 팜팡가주 주민들에게 큰 도움



윤병태 나주시장(오른쪽)과 데니스 가르시아 피네다 필리핀 팜팡가주 주지사가 4일 나주시청에서 '우호교류 협력·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분야 교류·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이익과 발전이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 기자



담양군, '한의약 노인건강 충전교실' 어르신 호응

담양군은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한방 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의약 노인건강 충전교실'이 참여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의약 노인건강 충전교실은 한방진료 의료서비스와 뇌 및 손가락 자극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신체 활력증진을 위한 대바구니 만들기 등 공예체험 프로그램 등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잠정 운영이 중단되었

다 재개되는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웃 간 친목도모와 노년기 우울과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한방 의료 서비스와 건강 충전 교실을 집중 운영해 고향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향촌복지'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2023년 화순 문화시설 전시실 대관 모집

화순군이 내년도 문화시설 전시실 대관자를 모집한다.

군은 역량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다양한 작품 전시를 통해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시실 대관자를 모집한다.

전시실 대관 시설은 화순읍에 있는 화순군립석봉미술관, 도암면에 있는 천불천탑사지문화관이다.

화순군립석봉미술관은 제1·2전시실과 석봉전시실 3개 전시실, 불천탑사지문화관은 제2

전시실 1개 전시실을 대관한다.

대관 기간은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다. 모집 대상은 지역 예술가, 예술단체, 동아리 등 개인과 단체이며, 화순 지역작가를 우선적으로 하며 타 지역작가는 후순위로 선정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대관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관료는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23년 화순 문화시설 전시실 대관 모집 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례군,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구례군은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2회에 걸쳐 순천소방서와 연계하여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하여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제47조의 2를 근거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할 의료 행위의 일부이나,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심정지 환자 발생 시)에게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에 의의를 두고 있다.

실제로, 심정지가 발생하고 4~5분이 경과하면 뇌는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게 되고, 혈액순환이 중단되기 때문에 심각한 뇌 손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심정지 발생 후 1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은 97% 이상이지만 4분이 지나면 50% 이하로 크게 떨어지므로 심정지 발생 초기 5분의 대응이 생과사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심정지 발생의 60% 이상은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므로 가족, 동료, 행인 등 심정지 최초 목격자인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이 매우 중요하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슬기로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발간

곡성군이 각 마을의 특색을 살리고 마을공동체 분위기 회복을 위해 '슬기로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라는 마을 책자를 발간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올해 2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 전체 272개 마을 중 150개 마을을 선정해 각 마을별로 3년간 900만 원을 지원해 주민이 스스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슬기로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을 홍보하고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자 제작됐다. 책자에는 11개 읍면의 우수 사례들이 실려있다.

곡성군 담당자는 "마을 사업 메뉴판을 포함한 슬기로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책자를 발간해 우수마을 사례를 공유하고 자했다. 앞으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 마을이 다양하고 특색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양해영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관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널	포스코A&C	